

상태, 추가된 내용들 등으로 내면을 연관 지어 살펴 볼 수 있다.

나무그림에서 상징하는 줄기는 자아의 내적 대상의 힘, 가지는 환경에 대처하는 방식, 수관은 타인과의 관계, 뿌리는 문제해결 능력과 연관되어 살필 수 있음. 그리고 추가로 그려진 꽃이나 열매, 동물, 용이 등 부수적인 것들이 주는 상징적 의미를 통해 내담자를 탐색하고 정서적으로 돕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번에 실시된 학부모 도시농업 텃밭활동 프로그램이 자기개념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나무그림 검사를 프로그램 시작 전과 후로 나누어 실시한다.

검사 방법은 A4용지를 세로로 놓고 2B연필과 지우개를 준비함. 검사 지시문은 “나무를 그려주세요”라고 하며, 다 그린 후에는 아래 문항에 간략하게 답하도록 한다.

- 어떤 종류의 나무인가?
- 죽은 나무인가 살아있는 나무인가?
- 나무의 나이는?
- 나무의 건강은?
- 나무의 소원은?
- 나무를 보니 생각나는 사람은?
- 그리려고 한만큼 마음에 드는지?
- 어려웠던 부분은?
- 제목을 붙인다면?

#### 다. 기존 진단지와 차별성

학생의 학교폭력 가해 유형 및 정도, 원인 진단 측면에서 해당 문항에 학생 스스로 솔직하게 작성하도록 하기 위해 본 1차 설문지에는 무기명 작성을 원칙으로 함. 대신 해당 학생의 필적을 감정하여 판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차, 2차, 3차 설문을 구분하여 각각 설문지에 학생의 장래희망과 학교명, 학년을 수기로 작성하도록 유도함. 1차 설문 종료 후 1일 정도의 시간차를 주어 2차와 3차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며, 2차와 3차 설문지에는 장래희망과 학교명, 학년 외에 추가로 학생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이후 1차 설문지의 장래희망의 내용, 학생의 필적을 비교하여 학생을 판별한다.

즉, 학생은 1차 설문지 내용(학교폭력 평가척도)에 대해 무기명으로 작성하였지만, 연구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학생을 판별할 수 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학생의 원인문제에 해당하는 세부내용을 중심으로 학생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지도자는 학생에 대한 지지요인(온정, 수용, 경청, 존중, 공감, 긍정적 강화 및 보상, 동기부여와 같은 피드백 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